

# 개성이 툭툭 튀는 출판사 이름

## 순한글로 의미 강조하는 출판사 작명 백태

출판사 이름은 책의 얼굴이다. 어떤 때는 '책격'이 되기도 한다. 장난스러운 이름에는 신뢰가 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좋은 책을 펴내면 그 다음부터는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성을 바친다. 사람이 그렇듯 출판사들도 좋은 이름을 붙이기 위해 고심한다. 그래서인지 서점기에는 개성 넘치는 이름으로 자기 존재를 알리려는 출판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예전의 출판사 이름은 대개 의미 있는 한자어로 이어졌다. 1950년 을유년에 창립되었던 을유문화사, 초지일관한다는 일지사, 백성의 소리 민음사, 바른 소리 정음사 등 대부분 출판의 정신을 강조했다. '출판사'를 직접 붙이기도 했지만 삼중당이나 일조각처럼 '~당'이나 '~각'을 붙여 만든 이름도 많았다. 또 출판의 문화성을 강조한 '~문화사'라는 접미어도 흔하게 사용됐다.

70년대 후반부터 순한글 이름이 바람을 일으켰는데, 한길사·한울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출판사들이 쓴 '크다' 혹은 '하나'라는 뜻의 '한'이라는 말은 한글 이름에서 가장 많이 쓰인 접두어 가운데 하나다. 70·80년대 문학을 양분했던 창작과비평사, 문학과 지성사처럼 '~과~'도 한동안 인기 있었다.

그러면 문화사, 출판사, 요즘 많이 붙이는 미디어 같은 관례적인 말을 빼고 출판사 이름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일까? 단연 '책'이다. 책동네, 책마을, 책나라, 책세상 등 비슷한 뜻의 이름을 포함해서 모두 30여개. 거의 책을 만드는 곳, 책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지만 최고의 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담은 '책중의책'처럼 튀는 이름도 있다.

그 뒤를 이어 '나무'라는 단어와 형용사 '푸른'이 들어간 이름이 20여개에 달한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나무의 생산성이 출판행위와 비슷하고, 푸르다는 이미지의 건강함이 호감을 주기 때문이다. 사랑나무, 동화나무, 푸른나무, 생명나무, 생각의나무까지 추상적인 단어와 결합한 것이 많지만 소나무, 사과나무, 은행나무,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푸레처럼 나무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도 있다.

우리나라의 출판사는 등록돼 있는 것만 1

만2천여개이니만큼 비슷한 이름도 많은데, 나무와숲/숲과나무, 사람과책/책과사람은 자리만 바뀌었다. 푸른숲·푸른산·푸른피는 의미까지 유사하고, 밝은세상·다른세상은 조어형태가 같다. 새물결/새물결사, 청솔/도솔, 찬섬/책섬, 두레/이레처럼 유사한 이름도 있다.

### 출판사의 숲에서 개성있는 이름찾기

무성한 이름의 숲에서 자기만의 이름을 찾기 위한 노력은 결국 개성 있는 이름으로 나타난다. 출판사 이름이 길어지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경향이다. '자연과함께따른 세상', '나무심는사람', '시가있는마을', '책이있는마을', '씨앗뿌리는사람' 등 거의 한문장이다. 출판계는 "그만큼 할 말이 많아졌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풀이한다. 한자어로 축약했던 데서 풀이한 다른 형식만 다를 뿐 의미를 강조하는 작명은 여전히 흔하다.

물병자리라는 출판사는 2천년의 별자리가 물병자리라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책을 낸다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 무슨 뜻인가 고개가 가웃겨려지는 박이정은 '널리 알면 능히 정밀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논어의 '박이능정(博而能精)'에서 따왔다. 다양한 책을 펴내되 전문적 지식을 담겠다는 의지다. 이산은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뒷 두자로 출판에 임하는 우직한 마음을 보여준다. 편집부터 파격적이었던 박가서·장은 의기투합한 사람 가운데 '박가'가 유난히 많았다는 장난스런 설명 뒤에 '넓은 집의 책 터'라는 쉽지 않은 뜻을 숨겼다.

출판사 이름이 퍼낼 책의 성격을 보여주는 경우도 많은데, '이후'라는 이름에는 80년대 이후의 사회과학을 중심 주제로 삼아 '포스트 80년대', '포스트 마르크시즘'의 내용적 지향을 담았고, 출판사 '사람생각'에서는 인권을 생각하는 책이 주로 나온다. 별난 이름은 아니지만 '푸른역사'는 푸른숲의 자회사로 역사관련서를 주로 내고, 민음사의 자회사인 '사이언스북스'는 이름만으로 출판물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난다.

출판사 대표의 이름을 딴 이름도 눈길을 끄는데, 한승은 대표 이름이 '김한승'이고 윤킴은 대표 '윤재민'의 성과 커뮤니케이션

을 결합했다. 이름이 통째로 출판사 이름이 된 '박영률' 출판사도 있는데, 우리 전통에서 '이름을 건다'는 것은 명예를 걸고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어서 대표의 각오를 짐작케 한다.

세계화 시대를 반영하듯 외국어로 된 출판사 이름도 등장했다. 그리스 로마신화의 역사 여신인 '콜리오'는 외국어면서도 한국어 같은 어감이 좋고, '리드북'은 책을 읽는다는 것과 책문화를 이끈다는 이중적인 뜻을 갖는다. 베스트셀러의

염원을 담은 '베스트셀러', 고전으로 이뤄진 대우학술총서를 펴내는 '아르케'는 학문적 '원리'라는 뜻이고, '타임스페이스'는 사진하면 떠오르는 시간과 공간을 합쳐 지었다. 이들은 외국에 저작권을 수출하거나 외국책 판권 계약할 때 이름을 알리기가 쉽다고 이유를 든다.

출판사 이름이 색달라지면서 로고 타입도 변했다. 과거에는 점잖은 명조체나 무난한 고딕이 일반적이었다. 한자를 직접 쓰는 경우는 서예에서 쓰는 서체를 사용해 수공업적인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요즘은 자신만의 독특한 서체를 개발하거나 문양을 만들기도 한다. 서체 소프트웨어가 다양해져 대개 그 가운데 뽑아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서체는 변형된 고딕이다. 흔히 샘체라고 부르는 안상수체는 단정하면서도 변화가 있어 많은 출판사들이 애용한다.

### 작명원칙은 여전히 전통적

환경친화·명상서적을 주로 펴내기 위해 '나무심는사람'이라고 이름을 정한 출판사는 이름처럼 나무관에 조각칼로 새긴 듯한



출판사 이름도 이미지다.

서체를 썼다. 드물게 한자를 직접 쓴 '이체'는 점잖은 명조체에 어울리게 먹물이 번진 듯한 동그란 검은 바탕 위에 백자를 썼다.

심볼을 만든 곳도 여럿이다. 어린이들의 상상세계를 뜻하는 '날으는 용이 사는 연못'의 비룡소는 날개 달린 용의 모습을, '물병자리'는 뱀 모양의 별자리를 상징물로 삼았다. '술'은 몇 그루의 소나무를 단순화했고, '박가서·장은'은 각 글자의 첫 자음을 뺀 글자들을 원안에 집어넣었다.

아직 출판을 시작하지 않은 출판사 가운데는 점잖음을 훌훌 벗어던진 이름도 있다. '문지방'이나 '생각하는바나나' 같은 출판사는 어떤 책을 낼지 기대된다. 출판인들은 상표법이 강화된 데다 출판사가 많아 겹치는 이름을 피하려다 보니 발랄한 상상력이 결합한 특이한 이름이 나오는 것 같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출판인들이 꼽은 작명 원칙은 "읽고 발음하기 편해야 한다. 출판물의 성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로 여전히 전통적이다.

—이현주 기자